

“화엄경, 망망대해서 잡은 나무토막 같은 것”

범어사 관음재일 법회

용학 스님(범어사 승가대학 학장)

화엄을 알고 보면 만물이 아름다워진다. 만물은 각기 다른 곳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 맞게 스스로 주인공이 된다면 모든 것이 참여될 것이다. 용학 스님은 지난 3월 14일 관음재일을 맞아 범어사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청중들에게 법문했다. 용학 스님은 화엄을 통해 법신을 이롭게 하면 육신 또한 지혜광명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리=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지혜는 눈동자 굴릴 틈도 없이 나타나야 인간은 매일 혼, 병마와 싸우는 것도 모자라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다투며 전쟁같은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루라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삭막한 갈 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인간에게는 의지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은 인간에게 있어 눈먼 거북이가 망망대해를 헤매다 얻은 나무토막 같은 존재입니다. <화엄경>은 임진왜란 당시 왜구 침략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국민들이 어디 기릴 곳도 없고 먹을 식량도 부족하고 도탄에 빠졌던 시절, 상처받은 중생의 마음에 큰 위안을 줬습니다. 의상대사의 진신 사리라고 표현되는 <화엄경 법성계> 역시 화엄경의 정수를 담고 있죠. 의상조사는 법을 구하기 위해 만경창파를 건너 중국에 유학합니다. 하루 두 끼를 보리죽으로 때우며 <화엄경>을 공부한 후 210자 법성계를 펴냈죠. 그 덕분에 우리는 <화엄경> 80권을 다 읽지 못해도 그 정수를 온전히 읽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생이 개인적인 번뇌에 빠져있거나 국난에 처한 상황마다 부처님의 위신력은 큰 힘이 되는 듯 합니다.

<화엄경>에는 지혜가 모든 형상에 다 들어가서 법의 공적함을 환하게 알게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혜가 모든 형상에 다 들어간다는 것은 바른 깨달음의 안목으로 모든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본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지혜롭게 되면 탐심이 떨어지고 청정하게 되며 자비로움이 빛처럼 발하게 됩니다. 사람의 육성은 공기의 힘을 빌려야 비로소 들을 수 있지만 빛은 공기가 없는 진공 속으로도 뚫고 나갑니다. 이와 같이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소리처럼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해탈, 삼매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공간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텅 빈 공간을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마음껏 대자대비를 펼칠 수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이 살피는 힘은 아주 고요하고 집착력이 없이 청정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생각에 무게가 없고 행동에 앞서 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비심을 좀 더 빨리 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잡념을 떨치고 나면 지혜의 빛이 비껴온 사람에게 펼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중생이 원하면 즉시 방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가 아닌 이해타산으로 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혜라는 것은 눈동자를 굴릴 틈도 없어야 합니다. 가만있어도 900번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사람입니다. 진정 지혜로운 자는 잠깐 다른 생각을 할 겨

로도 없이 지혜 발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물이 '수처작주' 할 때 화엄 이뤄져

무비 스님은 <화엄경> 강설에서 “화엄해상의 대중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다. 컴퓨터 자판의 낱낱 글자에서부터 학용품, 책, 침구, 운동기구, 풀, 나무, 구름, 하늘 모두 화엄해상의 정법 대중”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스님은 “끝없는 품류들이 가득하고 형색과 부류가 각각 다르지만 모든 사물들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인생을 찬탄하고 그 존귀함을 되새기기를, 이를 찬탄하는 노래를 중생의 업과 번뇌가 다할때까지 목청껏 부르자”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화엄을 알고 보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만물은 각각 형상과 모양이 다르고 그 안의 성질이 다릅니다. 동쪽에서 온 사람은 동쪽에 앉고 서쪽에서 온 사람은 서쪽에 앉고 새는 날고 굼벵이는 땅속에 기어 다니며 매미는 나무에 붙어 땀땀 읊니다. 모든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아무리 작은 생명, 작은 물체라도 제각기 분수에 맞는 역할을 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은 태양대로 환하게 비추고 바람은 바람대로 시원하게 지나가며 만물을 자라게 하고 또 향기롭게 합니다. 봄바람 한 줄기 지나면 꽃이 피며 나뭇가지의 잎사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새싹이 돋아납니다. 바람은 깨달 없이 꽃과 잎사귀에게 한 줄기 생명을 주어 만물을 이롭게 합니다.

이처럼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처작주(隨處作主)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은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열매이지 않고 주체적이고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기의 주관을 세우지 말고 본심으로써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정직할 태세를 갖춘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뤄내야 합니다. 수처작주라는 말에서 제가 든 생각은 내가 만약 사형수라면 어떨까입니다. 이미 못된 짓을 저질러 사형선고를 받고 있는 사형수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끝까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남은 생이라도 봉사하고 살아야 할까요. 이미 살아온 업장이 두껍다면 참회를 위해 조그마한 것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처작주라는 말을 대할 때마다 저도 제 위치에서 도리를 다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가슴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 인간이 당장 자신 앞에 정직하다면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태양이고 어머니가 태양을 받치는 나무 숲이라 하면 태양이 아무리 내리쬐도 나무숲에 불이



용학 스님은 ... 1986년 해인사에서 명진(明振)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통도사 승가대학, 은해사 승가대학원을 졸업했다. 통도사에서 강장을 역임하고 2002년 무비스님에게 전강한 후 2008년부터 범어사 강주 소임을 보고 있다. 법호는 법해(法海)이다.

“
음성 들으려면 공기 힘 빌려야 하지만
빛은 진공상태에서도 볼 수 있어
자비행도 빛처럼 조건없이 발휘 가능
지혜로운 이는 마음껏 대자대비 펼쳐
생각은 바람에 흩날리는 밀가루 같은 것
밀가루에 물 한 방울 넣고 반죽하듯이
공부도 열심히 반죽해 단단해져야 ”

피지 않지요. 돌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돌보기가 인연입니다. 바로 제 업연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부모를 빌려 탄생이 됐지만 몰라도 법신(法身)은 그리 할 수 없습니다. 법신이라는 것은 본래 스스로 왔다가 스스로 가는 길입니다. 법신을 다른 말로는 진신 또는 진심이라 표현할 수 있지요. 육신은 유생유멸이라 생명을 따라 태어나고 죽지만 법신은 생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법신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법성정토(法性淨土)에 있습니다. 그러나 허공에 지나가는 바람을 볼 수 없듯 법신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이 화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육신이 법신을 잘못만나면 고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스

스가 내면의 법신을 잘 다듬고 개발해 육신을 편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육신은 생로병사의 과정에 따라 태어나고 병들고 죽고 썩어 없어지지만 법신은 생로병사를 따르지 않으므로 법신을 잘 연마해 육신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순일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니 내 발길 한 걸음 내딛는 곳마다 내 시선 한 눈길 가는 곳마다 수처작주 입체개진을 되새겨, 어느 곳에서든 스스로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이 참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장님이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

일체 장엄은 모과가 익어가고 매화가 피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쏟아지고 물이 흘러가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생에게는 선근이 없고 삼매가 없고 지혜의 안목이 없고 신통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늘 살아가는 것에 여기저기 시달리다보니 강가에 가서도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지혜복덕이 없으면 보물 장소를 가르쳐 줘도 가지도 못하고 간다 한들 보물을 챙기지도 못합니다. 눈먼 사람이 보배섬에 산다고 한들 보물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화엄경>의 보물 역시 챙길 수 없는 것입니다. 화엄경을 숙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밤도 별이 가득하고 내일 밤도 별이 가득할 것입니다. 동시에 참 슬프게도 오늘도 생명이 죽어가고 내일도 죽어갈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늘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공공 얼어 움직이지 않는 영원

히 흐르지 않을 강물이 되고 싶단 생각도 합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결에 함께 흘러가며 비가 내리면 비들은 몸으로 맞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밀가루를 바람결에 두면 작은 바람이라도 팔팔 날아가 모두 흩어집니다. 우리 생각이란 것도 바람결에 내놓을 밀가루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밀가루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고 주물러 단단한 반죽덩어리를 만들듯 열심히 공부해 자타일시 성불도를 이뤄야 합니다. 약한게 뜻을 모르더라도 함께 불경을 외우다 보면 괴로움이 사라지는 때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염불이 단순 반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매가 익어갈 내 마음의 열매를 익혀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보살도를 닦기 위해 수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청정한 게을라야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은 깨끗하되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의식주가 적당히 유지가 돼야 수행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어사처럼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 들어가 공부하면 더욱 좋겠죠. 관음재일 법회를 찾아오신 여러분은 스스로 배우고자 오신 분들이죠. 마음내서 오신만큼 스스로 보살이다 생각하고 남에게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살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음식, 수면, 몸, 숨, 생각이 모든 것들을 조절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도를 행할 때는 스스로 거룩한 도를 행하고 못한 사람도 교화해야 진정한 보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사된 망령들을 버리고 정법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발보리심하여 정법도량에 앉아 도리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靑雲天氣轉換秘法 (청운천기전환비법)

한국풍수지리사상 처음으로 조상 묘(墓)의 수맥파를 이장(移葬)없이 생기(生氣)의 명당(明堂)으로 전환시키는 청운천기전환비법(靑雲天氣轉換秘法) 탄생(誕生)!

조상의 묘(墓)로부터 음기(陰氣)의 수맥파가 자손의 혈맥(血脈)으로 흘러 냉기(冷氣, 저체온)를 유발시켜 각종 암, 우울증, 정신분열, 빙의, 성인병등 난치병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나, 현대의학에서는 가족력이나 유전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집안에도 음기(陰氣)인 유해파를 생기(生氣)로 완전히 전환(轉換)시켜야 보다 빠른 치유와 사업성취가 가능(可能)하다는 것이 소승(小僧)의 오랜 시험(試驗)으로 입증(立證)되고 있습니다.

선친이나 자매, 형제 중에서 같은 암(癌)이나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거나 사업부진, 가정불화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필히 조상의 묘(墓)나 본인이 직접 수맥파 검사를 받으셔서 (현장 방문없이 전화상담으로도 확인가능) 조상묘(7대까지)의 백골(白骨)에서 자손의 혈맥(血脈)으로 흐르는 수맥파를 직접 확인하여 유해파로 인한 음기(陰氣)의 조상의 묘(墓)를 이장(移葬)없이 현장에서 즉시 생기(生氣)의 명당(明堂)으로 모시고, 가족건강과 가정평화를 이루시고 조상(祖上)께 효도(孝道) 하십시오!

건물, 가정의 수맥파도 현장에서 100% 차단!

만약 당신이 수맥파 위에서 잠을 잔다면 당신은 이미 병(病)들었거나 병들 위험이 매우 큼니다.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80-1번지 / 전화 031-595-8767
善財寺 靑雲 합장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빙이 낮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빙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중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중,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 (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